

장수 여름축제 · 산악 레이스 펼쳐진다

장수쿨벨리페스티벌 17~19일 · 쿨벨리트레일레이스 18~19일 개최

장수군은 제한절 연휴를 맞아 대표 여름축제인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과 자연의 품속을 달리는 이색 마라톤 '2026 쿨벨리트레일레이스'를 함께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장수방화동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은 '자연이 품은 계곡, 행복이 머무는 하루'를 슬로건으로 청정 자연과 시원한 계곡을 배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이러한 자연의 매력을 살려 물놀이와 공연,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형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대표 프로그램인 '쿨벨리 벨리밤'은 EDM 공연과 물놀이를 결합한 축제의 대표 콘텐츠로, 올해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운영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시원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쿨벨리페스티벌'이 열리는 동안 한여름 더위를 피해 숲길과 능선을 달리는 '2026 장수쿨벨리트레일레이스'가 기존 하루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이



장수군 대표 여름축제인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과 자연의 품속을 달리는 이색 마라톤 '2026 쿨벨리트레일레이스'를 함께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장수쿨벨리페스티벌 모습.

틀간으로 확대되어 열린다.

이 특별한 레이스에는 전국에서 200여 명의 건장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장수의 숨은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주)라엔런(대표 김영록)이 주최·주관하고 장수군 후원으로 오전 7시 30분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방화동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지는 18.8km 단일 코스로 펼쳐진다.

특히 대회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발 시간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순차 출발하고 제한 시간은 6시간으로 기록 경쟁보다는 자연과 호흡하며 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물을 활용한 게릴

라 이벤트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 상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여름 대표축제인 '제4회 장수쿨벨리페스티벌'과 숲길·계곡·축제가 어우러진 한여름 산악 레이스인 '2026 장수쿨벨리트레일레이스'가 제한절 연휴를 맞아 함께 열린다"며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원한 장수를 찾아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고 장수만의 청정 자연이 선사하는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마이산 북부 야외족욕장 개장

진안군, 11월 8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운영

진안군이 마이산 북부를 치유와 휴식, 가족 친화형 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야외족욕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0일 마이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2026 풍담풍담 족욕소풍'을 주제로 야외족욕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야외족욕장은 마이산의 대표 웰니스 자원인 홍삼과를 야외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냉족욕, 가을과 겨울철에는 온족욕을 운영한다. 바닥 분수와 벽천분수 등 수경시설도 함께 마련해 무더운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야외족욕장 운영과 함께 마이농촌테마공원 리모델링도 추진하며 관광객 체류 여건 개선에 나섰다. 리모델링을 통해 넓은 잔디광장인 '별하는 마당'을 조성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자연 친화형 놀이시설인 '마이리 놀이터'도 단계적으로 개방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고 있다.

특히 마이농촌테마공원을 중심으로 5가지 테마의 '마이정원'과 사양재를 순환하는 약 1.4km의 웰니스 맨발걷기길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자연 속에서 걷기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야외족욕장은 오는 11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기간에는 홍삼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테마족욕탕을 비롯해 바닥·벽천분수 등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피크닉 세트와 보드게임, 물총 등을 대여하는 힐링 휴게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오는 8월과 10월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0대 진안군의회, 첫 의원간담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명갑)는 1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과 의회 운영사항을 공유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제10대 진안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의원간담회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호수공원 시범사업과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농촌관광 관련 공모사업 등 주요 군정 현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제3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계획, 조례안 등 의회 운영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의원들은 각 안전에 대해 사업 추진 방향과 군민 체감 효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집행부는 제시된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모집 경쟁률 6대 1

진안군은 2026년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차 임대인 모집 결과, 5세대 모집에 30세대가 신청하며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최종 귀농·귀촌인 5세대 13명이 새롭게 입주하게 됐으며, 이는 지역 인구 증가와 농촌 활력 회복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차 모집은 오는 9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5동이었던 빈집재생 물량을 올해 10동으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20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진안군의 '희망하우스+기본소득' 모델은 농촌 지역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교육지원청, 농어촌 학생 위한 대입전략 특강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지난 1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장수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관내 중·고등학교와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을 위한 대입전략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농어촌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의는 전라북도교육청 대입지원단장인 조창형 교사가 맡아 △농어촌 특별전형의 이해 △농어촌·지역인재전형의 활용 방안 △학생부 중심 대입 준비 전략 등을 실제 입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평소 궁금해했던 입시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진학 정보를 안내하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3회 장수군수배

전국승마대회 개최

장수군은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간 천천면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제3회 장수군수배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승마협회(대표 박영재)가 주관하고 대한승마협회 공인을 받은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로, 마장 미술과 장예를 경기 등 총 22개 종목이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에는 전국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약 200명의 선수와 160두의 마필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는 KEF 공인 종목인 마장 미술 고대일반부·유소년부·통합부(F Class, D Class, C Class, B Class)와 장예물 70~130cm 종목 등 다양한 수준별 경기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제54회 한국마사회장배 승마대회' 예선을 겸해 전국 우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더욱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어린이 문화탐험대 운영

예술 · 자연 어우러진 창의력 캠프

무주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예술과 자연을 체험하는 '창의력 캠프: 어린이 문화탐험대'를 운영한다.

무주군은 오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매주 금·토·일요일 최북미술관과 덕유산무주리조트, 태권도원 등에서 '창의력 캠프: 어린이 문화탐험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사업인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젝트 '반더런키즈(BANDERUN KIDS)'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예술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주차별로 다양한 주제를 담아 진행된다.

1주 차인 17~19일에는 '예술탐험대'를 주제로 움직임 놀이와 '세상의 모든 엘리스' 도슨트 전시 관람, 음악 놀이, 별자리 관측 등이 마련된다.

2주 차인 24~26일에는 '창작탐험대'가 운영돼 가면 음악극과 도슨트 전시 관람, 어린이 생활원에, 그림책 콘서트 등 예술과 놀이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마지막 3주 차인 31일부터 8월 2일까



지는 '상상탐험대'를 통해 미디어 상 상놀이극과 도슨트 전시 관람, 유아 예술 프로그램, 별자리 관측 등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예정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완료

무주군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이상고온에 대응하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5.4ha 사파원에 다목적 햇빛 차단망을 설치했다.

다목적 햇빛 차단망은 과수원 내부 온도를 3℃ 이상 낮춰 강한 직사광선

으로 인한 일소(햇빛 데임) 피해를 1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

과실 착색 향상은 물론,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나 우박으로 인한 과실 손상 및 낙과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입증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복합 재해 저감 기술로도 평가받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